



東國法學報

東國大學校 法科學 · 法務大學院 | 1949 | 제9호

동국대학교 개교 110주년 후원의 밤 행사

1. 개교 110주년 후원의 밤, 올해 기부금 230억 돌파

올해 우리대학이 개교 11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0일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교 110주년 기념 동국대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다.



교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 출신 KBS 한상권, 이정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교 110주년 기념 행사에는 불교계 및 정관계, 동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우리대학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성타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동문 탤런트 강석우 씨 등이 참석하였다.

법과대학 법무대학원(학장 한희원)에서는 국가정책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를 비롯하여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법과대학의 모금현황은 총 77,700,000원으로 기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김용길	3천만원	김오달	1백만원
법학 '61		(주)대흥연마철재 대표이사	
문자영	1천만원	박수영	1백만원
천안자생한의원		(주) 에이치피에스 대표이사	
이규현	1천만원	서정윤	5십만원
대광기업 대표이사		자산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한희원	1천만원	김광배	2십만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장		한양대학교 AMP 회장	
국가정책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및 원우회	1천만원	자산경영 최고위과정 원우회	5백만원

▲ '후원의 밤'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기부자 명단

개교 110주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진행된 모금 캠페인 'Brand New Dongguk'과 11월에 개최한 '후원의 밤'을 통해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금이 23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문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으로 '후원의 밤'에서만 100억 원에 상당하는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오는 2020년까지 1,1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서울캠퍼스에 로터스관과 108주년기념관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2. 법무대학원, 서울 동부·남부지방법무사회와 MOU 체결

지난달 11일 우리대학 본관에서 법무대학원(원장 한희원)과 서울 동부·남부지방법무사회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와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는 우리 대학 법무대학원과 학위과정 홍보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장은 협약식에서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공동체 사회의 총체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법률가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으며, 양 법무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인재와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대학원의 학위과정 개발과 법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과정으로, 법무대학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법무대학원의 입학생은 전기와 후기를 포함하여 총 30명이며, 17학년도 전기 입학 예정자는 12월 현재까지 총 15명이다. 법무대학원과 법무사회의 협약으로 지원자의 증가와 향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3. 2016 법대인의 밤 개최



지난 6일, 우리 법과대학은 '2016 법대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교내 상록원 3층 식당에서 법대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2016 법대인의 밤'에서는 학번과 전공을 망라한 재학생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4.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정용상 교수 당선



지난달 25일 한국법학교수회의 차기 회장으로 우리 학과 정용상 교수가 선출되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과 법대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흥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장의 뒤를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는다. 정 교수는 "어느 때보다 법학계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대적 역할과 법학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에 전국 법학 교수들의 모임으로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법학 관련 학술활동을 비롯하여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1,500여 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및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5.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명단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12월 현재)는 총 14명으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합격대학	성명	합격대학
이철환 (법 02)	원광대	김봉주 (법 11)	경희대
강문찬 (법 05)	영남대	김중권 (법 11)	전남대
이태형 (법 08)	전북대	홍찬영 (경찰행정 07)	성균관대
이운정 (법 09)	원광대	김대휘 (경찰행정 08)	성균관대, 경희대
김정권 (법 10)	제주대	신재협 (경찰행정 11)	서울시립대, 경북대
양원석 (법 11)	전남대	양혜림 (경찰행정 13)	연세대, 서울시립대
박기웅 (법 11)	경북대	황정환 (국제통상 13)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차 등록기간 이후, 내년도 1월 중순에 4~6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용복(법학 80), '비선실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검보 임명

우리 학과의 이용복(법학 80) 동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되었다. 이용복 특검보는 2012년 디도스 특검 당시에도 특검보로 활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른바 정윤희 문건 유출사건으로 조용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법률적 지원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검보는 박영수 수사팀장을 비롯하여 박충근, 양재식, 이규철 특검보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문화.체육 분야 전반에 걸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SBS뉴스 기사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박영수 특검이 학연이나 지연의 고려 없이 정예병을 차출한 인적 구성"이라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7. 우리 학과 출신 사법연수원생, 무료 법률상담 실시

우리 학과 출신의 사법연수원생이 교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활동은 사법연수원생의 공익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과 출신의 박현우, 김주오, 성혜진, 유재벌, 고광욱, 김상선, 김소엽, 박미소 (8명) 사법연수원생이 오는 12월 23일(금)까지 법률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8. 제3회 동국법학 세미나 개최 예정

우리 학과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국법학 세미나가 2017학년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법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 분야를 발표하는 '동국법학 세미나'는 법학계에서 최근 이슈화되는 담론을 주제로 하여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모여 연구 분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세부 일정 및 세미나 장소는 현재 조정 중이다. 주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임규철 교수 이메일(limg2201@hanmail.net)로 접수가 가능하다. 발표자의 소속 및 연구 주제 등을 기재하여 사전 접수 후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9. 2017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서울캠퍼스) 개최

2017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서울캠퍼스)이 내년도 2월 16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관 중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기에 앞서 법학관 253호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